

3월의 독립운동가 용성스님

기리는 행사 '풍성'

음악제·세미나·전시회·유적순례
서초동에 대각사상연구원 개원

용성 진중선사(1864~1940)가 3월의 독립운동가로 지정됨에 따라 3월과 4월
에 걸쳐 이를 기리는 음악제 전시회 세미나 유적지순례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개달음을 얻은 선사, 독립운동을 하다 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 역경(譯經)과
찬불가 활동 그리고 선농(禪農)병행과 참선만일결사를 발족해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에 진력한 스님의 면모를 조명하고 그 사상을 오늘에 구현키 위한 행사
로 용성스님의 일대기를 창작 국악교성곡화한 '용성' 공연, 용성스님의 사상
및 근대불교사 연구를 위한 대각사상연구원 개원, 대각사상 학술세미나, 유물
유품전시회, 용성스님 열반58주기 법회, 개국 이래 호국영령 영령천도법회 및
불우이웃을 위한 매일 무료급식, 용성스님관련 유적지 순례 등이 개최된다(표
참조).

특히 3월 13일 종로 3가 대각사에서 열리는 대각사상 학술세미나에는 도문
스님(대각사 조실)의 기초강연과 '용성대선사의 생애(보광스님)' '용성대중사의
독립운동 관제(김공식)' '용성조사의 대각교 설립 배경(홍윤식)' '불교계
독립운동(김창수)' 등이 발표된다. 서초구 서초3동 현대정원오피스텔 201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스님)은 앞으로 근세불교를 위주
로 한 불교사상연구에 매진하며 세미나 개최, 논문집 발간 등 불교학 발전을 위
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간다.

이경숙 기자

◇ '3월의 독립운동가' 지정기념
용성선사 관련행사

Table with 3 columns: 일시, 내용, 장소. Lists events from 3.1 to 4월, including memorial services, lectures, and performances.

스님의 생애 선율로 그린다

4월 23-24일 국립극장 공연

국악교성곡
'용성'
마우리작업
박범훈교수

단장)가 정도사에서 용성스님의 일
대기를 칸타타로 표현한 '용성' 마
우리에 여념이 없다.

도문스님의 작사를 목정배교수
(동국대)가 작사한 '용성'은 전체
공연이 1시간 20분이 걸리는 대곡
으로 오는 4월23~24일 이틀간 장
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부처님오신
날 기념 음악제로 개최될 예정.

'용성'은 △서곡 △탄생 △출가
△시련 △독립운동 △대각 △육고
△역경 △대중포교 등 탄생부터 열
반에 이르는 스님의 일생이 드라마
틱하게 펼쳐진다.

특히 무대위에 연화대를 준비해
극적인 장면에는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해 색다른 볼거리를 연출할 예
정. 스님이 출가하려 암자에 가는



신민요풍의 찬불가
로, '항쟁가'는 찬불
가로써만 아니라 신
민요의 창작국악곡
으로 평가됩니다. 용
성스님은 최초의 국
악작곡가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인데 같
은 국악작곡가로서
스님의 일대기를 국
악교성곡으로 엮으
니 감개 무량합니다.
이것도 소중한 인연
이라 생각하며 부처
님께 감사드릴 뿐이
지요.

박범훈 교수(중앙
대·국립극악관현악

불심지심 <115>

강경을 끝내고

삼월東風雨 (삼월동풍우)
前溪水水深 (前溪水水深)
(전계수정심)
草生繁世念 (초생번세념)
(초생번세념)
花落靜禪心 (화낙정선심)
(화낙정선심)
燕補經年壘 (연보경년루)
(연보경년루)
鶯啼春色好 (앵啼春色好)
(앵啼春色好)
(인간춘색호)
講後一高吟 (講後一高吟)
강경을 마치자 한 곡조 높이 올다.

연담대사의 '삼월'이라 제한
사이다. 봄의 경치를 여실하게
서술한 시이다. 월령으로서의
계절이야 정월이 되면 이미 봄
이 하지만, 자연의 기후로
실감되는 봄은 삼월이나 되어
야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 시도 이렇듯 제자리로 돌아
온 봄의 실상을 보여주는 시이
다.

스님들의 삶이 원래 자연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도 계절감이 여실하지만 이
시와 같이 봄의 한 단편을 묘
사한다는 것은 역시 시인의 수
사적 기질이 있어야 가능한 것
이다. 겨우내 얼었던 시냇가
봄 비로 인해서 풀이 흐르듯
되어 지금껏 정제되어 있던 물
이 흐르기 시작하니, 얼었던
시냇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이
다.

봄이 되면 번거로워지는 세
상 생각이라 한 표현은 역시
스님의 생각이다. 우리 속인이
더 되었으리라. 그러나 강을 파하
고 한 수의 시를 이렇게 읊어
보는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한명회의 삶 '소설로'

최민준씨 '달마상법' 펴내

한시대를 풍미했던 조선조 문신 칠삭둥이
한명회의 삶을 그린 소설 <달마상법>(말말
刊)이 나왔다. 최민준씨가 펴낸 이 책은 한명
회의 삶과 달마상법의 묘리를 그린 소설이다.
달마상법은 중국의 달마대사가 관상에 동물의
형상을 접목시켜 그 명칭이 유래된 것으로 천
리(天理)에 따라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는 치
세를 위한 통치의 학문이라 일컬어진다.

용상 등 1백여가지가 넘는 물형의 상과 2
백60 길종도를 통해 개인의 앞날은 물론 한
나라의 장래까지 알 수 있는 상법비전이 소
설 전반에 걸쳐 사건을 풀어가는 핵심이다.



황룡사지 유물전시관 세운다
전남 영암엔 '도선국사유물관'

신라 최대의 사찰터 황룡사지와
도선국사 탄생지 영암군에 각각 유
물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황룡사지 유물이 제대
로 된 보존시설없이 방치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총사업비 2백74억원을
들여 2008년까지 '황룡사지 유물전
시관'을 세우기로 하고 17일 문화
재관리국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전시관은 연건평 1천4백50평에 지
하1층(5백평), 지상9층(1층 1백50
평~9층 80평), 높이 80m로 세울

계획이다. 외형은 황룡사지9층목당
을 본뜨고, 내부는 현대식 건축기
법으로 구성, 황룡사지 출토유물 4
만여점 및 경주의 중요모형을 제
작, 전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우
선 18억6천만원(국비 13억, 도비 2
억8천, 시비 2억8천)을 확보, 설계
에 들어간다.

도선국사 열반 1천1백주년을 기
념, 도선국사의 탄생지인 전남 영
암군도 전국 각지에 분산 보관중인
도선국사 유물의 집중적인 관리와

과학적인 보존·전시를 위해 유물
관을 건립한다.

99년 12월에 완공된 전시관은 국
비 5억원, 도·군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도갑사 경내에
1백평 규모의 전통양식으로 건립된
다. 내부에는 도선국사 탄생설화와
행적 등을 기록하고 있는 유물은
물론 풍수도참사상을 밝혀줄 수
있는 각종 문헌 및 유물을 전시, 도
선국사의 사상을 집대성하는 분산
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은 도선
국사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으나 별
다른 유물이 없는 실정"이라며 "도
선국사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
릴 수 있도록 유물을 수집, 전시해
도선국사의 연구 토대를 마련해 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문화재와
보존과학' 97'. 청동문수동자상 등 보존처리된 유
물 60여점을 볼 수 있다.

시로 읽는 생활불교

고형렬시집 '성애꽃 눈부처'

"이불을 어깨에 둘러감고 바라본 창을
/물이 되어 흐르는 은빛 부처, 찬란한 햇살/
그때 내겐, 성애꽃을 부를 이름이 없었다."
(성애꽃 눈부처 중에서)

'소요산 입구에서' '실악산 골 봉정암' 등
법학 그윽한 시들이 실려있는 고형렬시인의
<성애꽃 눈부처>(창작과비평사 刊). 일상적이고
인간적인 서사를 근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불법의 깊은 묘리를 사상 속에 담았다.

'산길 94'에서 시인은 진지한 불도 수행자
의 모습을, 생활 속의 행복을 깔끔하게 펼쳐
보이는 시 '오이마사지' 등이 눈길을 끈다.

도갑사 문수동자상 첫공개

국립박물관, 보존처리유물 60점 전시

지난해 3월 도갑사에서 출토된 청동문수동자상과 광배
가 보존처리를 거쳐 처음 일반에 공개된다. 국립중앙박
물관이 2월19일까지 '문화재와 보존과학 97'을 개최, 지난
한해동안 보존처리한 6백60점의 유물 중 '천마도 장니' 등
대표적인 60여점을 연구결과와 함께 전시하고 있다.

93년 청주시 사비사에서 발견된 4백여점의 유물 중
2백여점도 보존처리를 한 결과 중요한 고려시대의 명문
자료가 새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향완·대야·풍탁·바
루 등에 새겨진 명문에는 사비사와 선원사 두 곳의 사
찰이름과 통화15년(997)부터 기유명(1249년경)까지의
연대가 나타나 있어 새로운 편년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1998학년도 제7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출강 법사교육 신입수강생 모집
불교교육·법사교육,
법사를 양성하는 도량,
한국불교법사대학!
선교방편으로 포교하는 법사(法師)
체계적인 불교공부로
믿음을 성취하고
지혜와 복덕이 무량광대한
부처님의 시절(使節)인 법사가 되도록
한국불교법사대학 도량에서 함께
육화(六和) 수행 정진합시다!!
특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봉수와 소정의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0-1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건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 737-5305
FAX : (02) 737-5305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인하 하였습니다.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남강으로 풀칠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전통회화, 팔공산의 고종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다채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불초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부속 다인화된 유동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원천 상태(풀조 및 인쇄까지 합지 방식)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연등본(80cm 100cm) ◆ 조립용에 연등용 분인 상태 ◆ 연등본생성
문의 하실 곳 : (02)277-1548 H:(016)552-9360
4P 현우기획